

# 공군

AIR FORCE MONTHLY



# 10

1998

통권 제244호



공군본부

1998  
10

## C O N T E N T S

AIR POWER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4
공군은 지금		6
공군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빨간 마후라'의 참뜻을 새기며	10
Zoom In	철마의 길라잡이, 두계 TMO 사람들	12
정보 비행	'98 서울 에어쇼, 100배 즐기기	14
기획 특집	사진으로 보는 공군 발전사	16
생각해 봅시다	정신은 칼날, 육체는 칼집	20
항공기 열전	기동성 뛰어난 우리 공군의 주력기 F-16	22
이달에 만난 사람	국군의 날 제병지휘부 공군지휘관 배창식 준장	23
I Love Air Force	신대방 395번지에서 띄우는 편지	24
마음따라 가는 길	해미읍성에 잠들어 있는 역사	26
Green Air Force	내분비 장애 물질이란 무엇인가?	29
장군이 원하는 한권의 책	리더와 보스	29
문화이당	우리 곁에 재즈가 있다	30
마음으로 읽는 글	블라인드 워킹	34
취미의 세계	HAM, 매력 만점의 아마추어 무선	35
Sky Vision 21	정예 공군인 육성 방안	36
자력증 시대	국기검 1' 운동을 전개하며	40
FOCUS	적극적인 개혁으로 '달라지는 공군'	41
나의 유학기	스페인에 가면 '사람'이 보인다	42
나의 그 시절	젊음의 치기가 넘치던 대전 교육사 시절	44
경제를 살리는 지혜	"IMF 때문에..."	45
나의 생각 · 나의 느낌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46
	월드컵과 '아트 웨더'	47
	진아는 아직 살아 있다	48
자유 발언대	국민들에게 군을 제대로 알리자	49
기지 소식지 No. 1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이름들	49
알립니다		50
포토 에세이	비행헬멧과 갓	51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춘택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군개혁의 방향이 결정되어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개혁 과제와 관련, 공군에서 분담하고 있는 분야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군 내 개혁과 관련해서는 ‘강한 공군, 효율적인 공군, 경제적인 공군’을 위해 분야와 특기를 초월한 대응적인 차원에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바랍니다.”

군개혁 추진 강조 특별 훈시 중에서

# 전망, 21세기의 우리 공군력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독자적인 전략적 항공 전역의 임무 수행만으로 후세인(김정일)과 그 체제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항공력만으로 이라크(북괴)의 공격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항공력은 지상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상군의 기동을 기다리는 편이 나은가? 지휘부와 주요 표적에 대한 전략적 공격과 이라크(북괴) 지상군에 대한 직접적 공격 중 어느 편이 단기간에 최선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 우리 공군은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걸프 전쟁 전후를 통해서 항공력에 대한 이같은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공군인들은 질문 자체가 가진 의도로부터, 인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답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타군들은 우리의 교리와 믿음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공군인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항공력 사상을 도외시한 측면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위의 의문들은 항공력이 출현한 때부터, 좀더 본격적으로는 제2차 대전 이후부터 주어졌던 것들이고, 그 해답 역시 항공 전략 사상가들의 고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쟁을 통하여 이미 입증된 것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입증된 사실들을 집약한 것으로, 모든 공군인들이 항공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운용을 바탕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의 신념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체 12회 연재를 계획하고 있으며, 1부에서는 항공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주요 항공 전략 사상을 사상가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2부에서는 각국의 공군 독립 과정 및 전쟁에서의 항공력 운용 사례를 통해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항공력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 공군인들은 위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 항공 시대의 문을 연 개척자들

항공력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 항공 전략 사상은 선각자들의 혜안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교훈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인류 최초의 열기구(Smoke-filled Balloon) 비행은 프랑스의 몽골피에(Mongolfier) 형제가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적이 보유한 모든 비행 수단을 공중**

**작전 기지 혹은 생산 기지에서 격파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상에 익숙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1782년 11월에 이륙하였다. 다음해인 1783년 8월에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수소 기구 (Hydrogen-filled Balloon)로 45분간 비행한 기록이 있고, 그해 11월에 로지에르(de Rozier)는 500ft, 20분간의 기구 비행에 성공하였다. 군사 작전에서 처음으로 기구를 사용한 것도 프랑스로서 1794년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1870~1871년 보불 전쟁시에는 전보 배달 및 승객 수송 작전에 기구가 이용되었다. 항공 전략 사상은 1893년 미국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서 영국 과학성의 J. D. Fullerton 육군소령이 <항공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태동을 예고하였다. 10년 후인 1903년 드디어 라이트 형제의 동력기 비행이 성공하면서 항공기 역할에 대

한 기대는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항공 기술 발달의 유아기적인 상황으로 개척자들의 이론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 항공력을 길러나가야 하는 까닭

1908년 H. G. 웰스는 그의 공상소설 <공중전쟁 : War in the Air>에서 항공력(Air Power)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공중에는 길도, 수로(해협)도 없으며 고정된 적의 요새도 없기에, 만일 적이 우리 수도에 도착하려 한다면 틀림없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이라는 3차원에서의 무한한 군사 잠재력을 매우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1910년 이탈리아의 군사 이론가 줄리오 두헤가 <항공 전략의 기초>라는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항공 전략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두헤는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적이 보유한 모든 비행 수단을 공중, 작전 기지 혹은 생산 기지에서 격파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상에 익숙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항공 전략 사상을 역설하였다.

항공 전략 사상의 의의는 항공력을 국가적 이익과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력 선택으로 국가에 제공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인들은 항공력을 필요한 수준으로 건설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사상적 기초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제13회 공군창작전 개전식(9. 9)



참모총장 미7공군 부사령관 스미스 소장에 보국훈장 천수장 전수(8. 25)

공군 태권도 선수단은 제7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하였다(9. 10)



작사 언론인 초청 행사(9. 3)

10전비 전 공군기지에서 모인  
수재 구호품 분류 탑재(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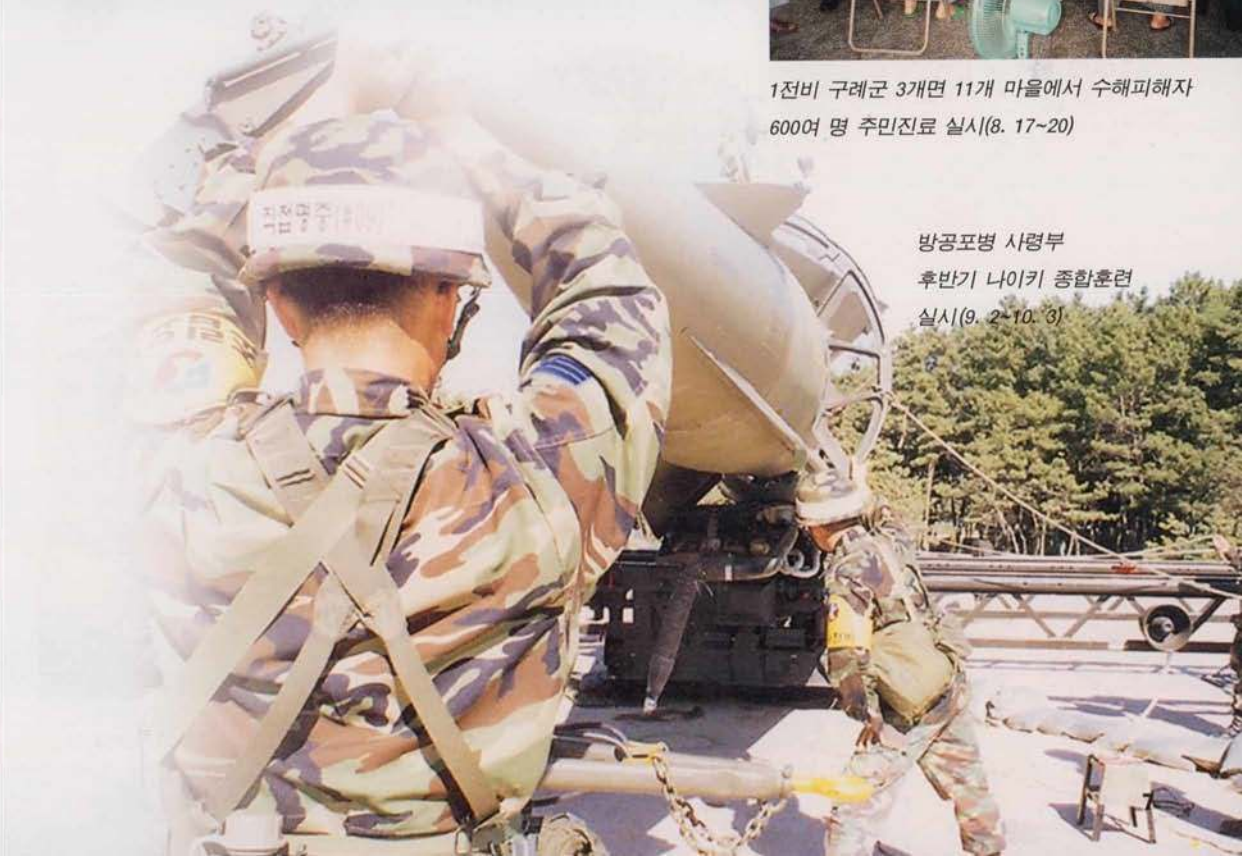
본사 비상급식훈련  
실시(8. 20)



30단 화생방전시 유선통신망  
복구 훈련 실시(8. 19)



1전비 구례군 3개면 11개 마을에서 수해피해자  
600여 명 주민진료 실시(8. 17~20)



방공포병 사령부  
후반기 나이키 종합훈련  
실시(9. 2~10. 3)



102대대 9개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8. 24)

11전비 장병  
인근 육군특공부대 파견,  
타군 체험 훈련(9월중)



18전비 전시 파손 항공기  
수리 훈련 실시(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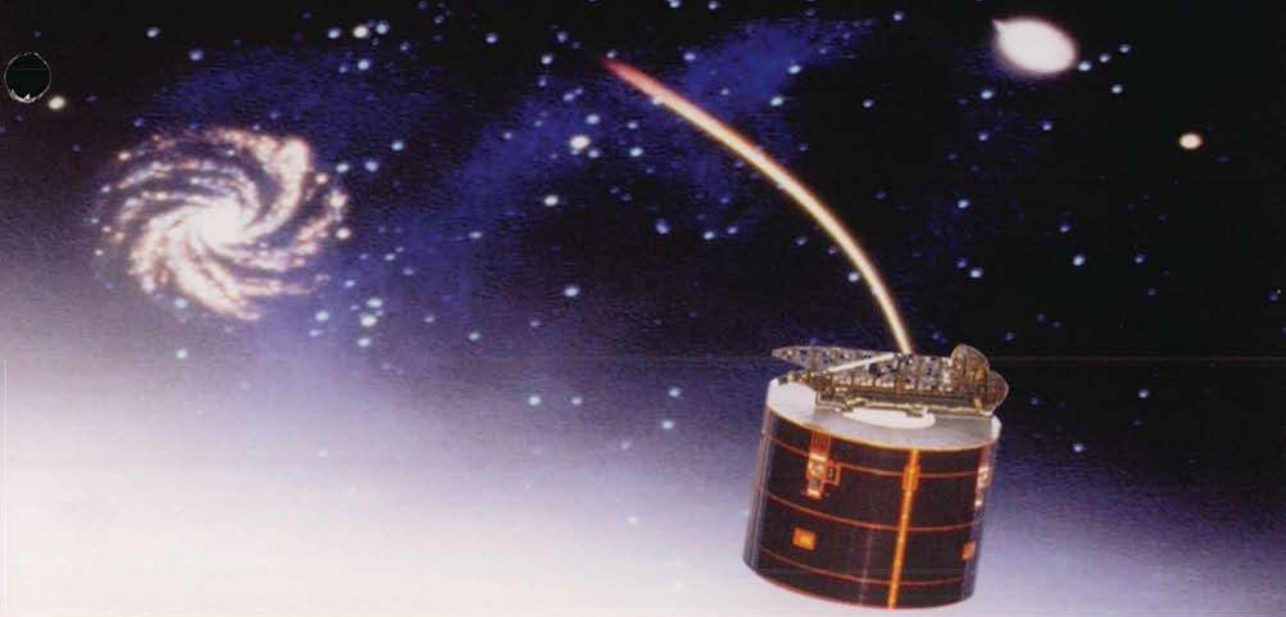


8전비 안중근연구회 부회장 신성국 신부 초청, 안중근 의  
사의 국가관을 주제로 안보강연회 실시(8. 12)



16전비 인센티브제 항공기 정비 분야에 도입하여  
결합발생률 40% 감소 성과 거둬(9월중)





17전비는 IMF로 부모가 실직한 영내 사병에게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9. 1)



해사 생도(54期)들의 18전비 견학(8. 13)



10전비 폭발물 처리반은 경기도 화성군 용두리에서 발견된 대형 폭발물(AN-M57)을 안전하게 처리하였다(9. 9)



6639부대는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하여 병영 체험 행사를 가졌다(8. 6~7)

# ‘빨간 마후라’의 참뜻을 새기며

공군박물관장 김영주

‘빨간 마후라’는 우리 공군 조종사의 대명사인 동시에 국민의 경애와 사랑이 담긴 자랑스런 공군의 상징이다. 초기에는 전투 작전 가능 조종사(Combat Ready Pilot)에 국한하여 지급하였으나 지금은 한국 공군 조종사 모두가 탑승 기종이나 소속 비행대에 관계없이 진홍색의 머플러를 목에 두른다.

## 조종사들의 가장 큰 명예

조종사가 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 빨간 마후라를 접하기는 초등 비행 과정에서 단독 비행을 마치고 안전 착륙할 때 담당 교관에 의해 준비된 머플러를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의식을 갖추는 것은 중등 비행 과정을 거쳐 고등 비행 교육을 수료할 때 조종사 한명 한명의 가슴에 과일렛 윙(조종사 배지)을 달아 주면서 목에 ‘빨간 마후라’를 감아 주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다. 조종사들에게 가장 영예롭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이다.

보다 거슬러 올라가면 6·25 전쟁중 강릉비행장에서 우리 공군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한국 공군 단독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를 더듬어 볼 수 있다. 당시 비행전대장이 출격을 나갈 때면 으레 빨간 스카프를 지급하여 보냈는데, 이것이 결국 전투 조종사의 상징으로 한국 공군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종사는 물론 온 국민에게 우리 공군 조종사의 상징으로 인식된 ‘빨간 마후라’의 유래를 살펴보면, 뜻밖에도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처음에는 추워서 들렀던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개인적으로 맨 처음 착용한 사람은 6·25 전쟁 당시 강릉 비행전대장으로 부임한 김영환 대령이었다. 김영환 대령은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33세의 독신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서울 출장중에 형님되시는 김정렬 참모총장 댁을 찾았는데, 이때 목이 시

린 탓에 형수님께 아무거나 흰색 머플러 하나 만들 수 있는 천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형수가 때마침 흰색 천은 없고 치마저고리 만드는 빨간색 비단 밖에 없다고 하자 결국 빨간색 천을 머플러 크기로 잘라 목에 두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만약 그때 흰색 천이 있었다면 우리 공군의 ‘빨간 마후라’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 전투 조종사의 투지를 상징

그후 김영환 대령은 귀대하였고, 강릉기지에 비행전대를 전개하여 얼마되지 않았을 당시 전대장 김영환 대령과 작전부장 장지랑 중령 등이 전투 지휘소에서 환담을 나누던 중 우연히 전대장의 목에 두르고 있던 빨간 머플러가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정열을 의미하는 빨간색은 당시 전시를 맞아 불꽃처럼 타오르는 전투 조종사의 투지와 우국충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만약 조종사가 비행중 사고로 조난을 당했을 때도 눈에 잘 띄는 빨간 머플러로 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으며, 또한 제1



차 세계대전 당시 애기(愛機)인 '알바트로스'를 빨강계 칠하여 '레드 벌룬'의 용맹을 떨쳤던 독일의 격추왕 리시터 호겐의 정열과도 상통하는 색이러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강릉비행전대 소속 조종사 모두에게 빨간 마후라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단독 작전 전투를 개시한 것을 기념하여 출격 조종사 전원에게 빨간 머플러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전쟁중 강릉 시골 시장에서 빨간색 천을 충분히 구입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구입 가능한 빨간색 천만으로 조종사 수에 맞게 자르다 보니 머플러보다 작은 스카프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빨간 마후라'는 이렇

게 해서 탄생하였다.

### 영원한 공군 사랑의 정신

우리 조종사들은 대한민국 공군의 자랑스런 호국간성으로서 남다른 긍지와 명예를 빨간색 머플러에 심어 조국 하늘을 수호하는 사명을 불태우고 있다. 1970년대 초에는 '빨간 마후라'를 주제로 한 TV 연속극과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다. 또, 작가 한운사(韓雲史) 씨가 작사한 노래 <빨간 마후라>는 지금도 우리 공군의 주체가로 애창되고 있다. 젊음·패기·정열을 상징하는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창공을 치솟는 조종사의 기상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감동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영광스런 공군이 있기까지 지난 50년 동안 '빨간 마후라'의 수많은 후예들이 조국 영공을 수호하다 호국의 별로 산화하였으며, 그 장렬하고 고귀한 헌신으로 공군의 빛나는 전통이 오늘로 내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공군 사랑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남긴 '빨간 마후라'의 참뜻이 아닐까 한다. ✪

# 철마의 길라잡이, 두계 TMO 사람들

## 추억으로 달리는 군용 열차 TMO

머리 꺾고 군용열차에 올라타면 멀리 손 흔들어 주던 어머니, 애인을 뒤로하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지를 향해 떠났던 아련한 기억. 혼련 마치고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좁은 야간열차를 타고서 밤새 임지를 향해 달리던 때의 기억들... 세월은 바뀌어 이제는 그 무섭던 군용열차 호송관들이 친절한 서비스맨이 되어 우리 곁에 서 있게 되었다.

예전에 두계역은 그저 조그만 간이역이었다. 물론 TMO도 없었다. 삼군본부가 이전한 뒤로 새마을호도 서는 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간이역 분위기다. 계룡대를 찾아가는 승객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 여객은 여전히 옛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조그만 간이역 시절에는 역전에 순대국집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슈퍼 이룸도 군인슈퍼로 바뀌었고, 귀대를 위해 복장을 다듬기 위한 군장집, 애인과 헤어지기 전 아쉬운 커피 한잔으로 마지

막 정을 나누는 커피숍, 요기를 위한 짜장면집, 설렁탕집, 칼국수집, 열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한 당구장, 호프집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 또한 본역 못지않게 커다란 TMO 건물은 이곳이 군사도시임을 상기시켜 준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조그만

시골역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겨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역 끝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멀리

기적 소리를 내며 육중한

군용열차가 뜨거운 바람을 물고

플랫폼으로 들어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바로 철마의 길라잡이

TMO 요원들이다.

## 공군 문화가 더욱 빛나는 '두계역 TMO'

두계역 TMO(Transportation Movements Office)는 '제3철도 이동관리대 두계 이동관리반'(정식 명칭)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3군 합동 근무로 각군에서 3~4명이 나와 각군 여행자들을 돕고 있다.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전투화 벗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지만, 근무 자체가 재미있고 보람도 있어 해볼 만하다.

공군 수송 파견관 이석찬 원사(42세, 하후 93기)는 부산역, 서울역, 두계역 TMO에서 20여년의 군대 생활 대부분을 보낸 철도 수송 전문가이다. 그는 조치원, 대전, 김제역까지의 인원·화물 수송을 관장하며, VIP 방문이 잦은 역의 특성상 무척 긴장되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촌형이 공군이라 제복이 멋있어 보여 공군에 왔다는 김완승 상병은 기차 시간을 물어보면 즉각 답이 나오는 '이동 철도 시간표'가 되었다. 열차 내에서 돈이 많이 든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었더니 지갑의 주인인 외국인 선교사가 감동하여 동아일보에 미담으로 소개되는 영예(?)를 가지기도 했다. 비행기 스튜어드를 꿈꾸며 공군에

온 손성운 일병은 비록 스튜어드는 못됐지만 기차 스튜어드는 되었다고 만족해하는 소박한 젊은이다. 3군이 자연스럽게 비교되는 이곳에서 그는 공군의 신사적 분위기와 문화가 더욱 빛난다고 자랑했다.

## 군에서 배운 '일의 보람과 기쁨'

"주말에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일에 빠져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군에 와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표와 씨름하고 기차 시간에 맞춰 장병들이 안전하게 차에 오르고 기차가 철컹 소리를 내며 떠날 때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들이다. 새삼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계 TMO' 라고 쓰여진 봉투에 표를 담아 건네주는 손성운 일병의 얼굴이 정겹게 느껴진다. ☺

글·6급 이인호/사진·7급 최성식

# '98 서울 에어쇼, 100배 즐기기

'98 서울 에어쇼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10월 26일(월)부터 11월 1일(일)까지 개최된다.

서울 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7일간 열리는 에어쇼의 관람 인원을 약 5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항공기의 시험 비행과 곡예 비행 및 첨단 항공장비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98 서울 에어쇼를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 최신 항공 우주 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총면적 8만여 평에 달하는 방대한 공간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관람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남문인 1Gate로 들어가 전시관(4개 동)과 샬레를 돌아보자. 그 다음 북쪽에 마련되어 있는 옥외 전시 항공기를 돌아보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벌어지는 시범 및 곡예 비행을 관람한 뒤, 북문인 3Gate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람 요령이 될 것이다(혹은 역순으로 관람).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내외 항공 우주 산업의 발전상과 최신 항공 무기 체계를 보다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 인터넷의 서울 에어쇼 홈페이지(<http://www.seoulairshow.com>)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거나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곡예 비행

서울 에어쇼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시범 및 곡예 비행일 것이다. 한국 공군의 곡예 비행팀인 블랙이글스, 한국 공군의 훈련기로 쓰일 KTX-1, 미국의 F/A-18, F-16, 러시아의 Su-35UB, Su-29, Mi-26, KA-32, 프랑스의 Rafale, Eurocopter사의 BO-105, Dauphin, 캐나다의 Challenger-604 등이 현란한 비행 시범 및 곡예 비행에 참가한다.

블랙이글스는 1953년 F-51 무스탕기로 첫걸음을 시작한 이래 F-86, F-5A 등으로 공군 특수 비행팀의 전통을 이어왔다. 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곡예 기동 과목은 50여 가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본 공통 과목 외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곡예 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다이아몬드 대형을 유지한 4대의 편대가 수직 상승하여 각 방향으로 분리하고, 그 중앙을 단독기가 뚫고 급상승하는 폭탄 묘기와 지상 100m에서 좌우측으로부터 시속 55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2대의 항공기가 순간적으로 동체를 90°로 세워 비켜가는 Knight Edge 기술 등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 고유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기동도 펼쳐보인다.



## SEOUL AIR SHOW '98



### 첨단 항공기들이 펼치는 연변한 묘기들

F/A-18 호넷트는 급상승·하강·수직상승 등의 묘기에 이어 수직 2회 직각선회, 연속 2회 수직상승 등의 고난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의 수호이기가 낮은 고도에서 스포츠카 정도의 저속으로 비행하는 성능을 과시하는가 하면, 수평 비행 상태에서 110°로 급격하게 머리를 쳐드는 코브라 기동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낼 것이다. 특히 Su-35UB가 삼각 동체가 수직상승해 갑자기 시속 1노트(1.8km)로 체공하는 묘기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할 것이다.

프랑스의 제4세대 전투기로 꼽히는 라팔은 음속의 1.8배로 비행하면서 창공에 8자 무늬를 수놓는 현란한 비행에 이어 9배의 중력 가속도를 이겨내며 180° 급선회하는 비행 곡예를 연출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 여객기 Challenger-604는 고객 시승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현재 유치를 추진중인 스텔스 폭격기 B-2의 참가가 확정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형태의 항공기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70여대의 실물 항공기 전시

한편 실내외에서 다양하게 전시되는 볼거리도 풍성하다. 4동의 실내 전시장에서는 미국의 Lockheed Martin, Boeing, Raytheon, 프랑스의 Dassault, 영국의 BAE, 독일의 DASA, 러시아의 Sukhoi사 등 155여 업체가 참가하여 자사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국내의 업체들이 560 부스를 설치하여 항공기, 우주 기기, 무기 체계 실물 및 모형, 관련 컴퓨터, 시뮬레이터, 공항 관련 장비 등을 전시한다. 실외 전시장에는 30여종 70여대의 실물 항공기가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첨단 전투기들을 비롯하여 수직 이착륙기인 해리어(AV-8B), AH-64, BO-105 등의 전투 헬기 등이 실물 전시된다.



### 군용기 직접 탑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또 한 가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민간인에게 군용기를 탑승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관람객의 날 하루를 택하여 추첨을 통해 선발된 민간인을 군헬기(HH-47)와 군수송기(CN-235 또는 CN-130)에 태우고 20~30분 동안 행사장 주변을 비행하게 된다.

그밖에도 행사 기간중에는 항공 우주 심포지엄과 항공기 및 인공위성, 2000년대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 항공 우주 산업과 CALS 등에 관한 학술 토론 등을 비롯하여 조종사들의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 문의 02-716-1542(참모장 대령 김정기)

●행사 당일 행사장에서 배포 가능 ●현재 상업은행 본·지점에서 표 예매중

# 사진으로 보는 공군 발전사

올해는 우리 공군이 탄생한 지 49년 되는 해이다. 조국의 푸른 하늘은 늘 우리를 감싸 주었으며, 우리 또한 하늘을 지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투혼과 정열을 불살라 왔다. 이번 호에서는 건국 50년 건군 50년을 맞아 우리 공군의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돌아본다.



L-4연락기

최초로 L-4 연락기 10대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우리 정비사들의 손으로 직접 조립을 완료한 다음 1948년 9월 역사상 최초의 비행을 시작하였다.



건국기 AT-6

해방과 더불어 국내의 항공인들은 1946년 8월 19일 한국 항공건설협회를 창설하여 항공인의 맥을 이었고, 1948년 5월 5일 육군 내에 항공기 지 부대를 건설함으로써 공군 창설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부활호

활주루에 정렬한 F-51전폭기







전선으로 향하고 있는 F-51 전폭기



북괴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기도 사건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1969년 8월 29일 F-4 팬텀 전폭기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우리 공군은 '마하 2'의 공군으로 크게 도약하게 되었다.



북괴공군이 MIG-17/21 전투기 40대를 보유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 1965년 4월 30일 F-5A 전투기가 도입되어 한국공군은 아음속에서 초음속 공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제트전폭기 F-86F



국산 전투기 F-5E 제공호



한국전시 한국공군 1,000회 출격 기념 (강릉 기지)

현재 우리 공군은 감시성·침투성·치명성·정밀성·신속 대응성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 및 우주 공간 이용을 통한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국내 항공 기술의 발달은 한국형 KF-16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기까지에 이르렀고 KF-16의 실전 배치로 인해 공군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억제력으로서의 역할과 국내 항공 산업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은 수송기, 훈련기, 헬기, 대공무기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를 운영하는 과학기술군으로 성장하였고, 21세기에 대비하여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군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략형 공군력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탐색구조 전문 항공기인 HH-47





50여년간 유능한 조국의 간성들을 양성하면서 한국 공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자 노력해온 공군사관학교는 '97년 한국군 최초로 여성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최첨단 방공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 공군은 24시간 불철주야로 영공을 감시하고 있다.



F-16 무장전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공대공, 공대지의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에 주력기 F-16, 최신에 전투기의 도입으로 우리 나라의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공군은 21세기형 미래 공군을 건설함으로써 세계적인 공군으로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다.

글 · 구성 정훈공보실

# 정신은 칼날, 육체는 칼집

공본 정훈공보실 중위 **신동현**

부녀자와 노약자까지 굶어모은 군대가 5배가 넘는, 그것도 잘 훈련되고 실전 경험까지 풍부한 정예 정규군과의 3개월에 걸친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믿어지는가? 이 믿기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의 조상들이 해냈다. 그것은 바로 안시성 싸움. 이 놀라운 전과의 바탕에는 신성한 우리 땅을 외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인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군력,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힘

현대전에서 공군력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영국 본토 상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항공전의 우세를 확보하려고 했다. 항공전에 패배하는 그 순간 영국 본토에는 엄청난 독일 지상군의 상륙 작전이 전개될 상황이었다. 영국 공군은 900여대의 항공기로 2배 가까이 되는 독일 공군과 지리한 전투를 펼쳐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조종사와 정비사, 관제사들 모두가 잠시의 휴식도 갖지 못한 채 연이은 전투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때 적에게 격추된 전투기도 많았지만, 연료가 바닥나 추락한 전투기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윈스턴 처칠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 사람들에 의해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던 것처럼, 독일 지상군의 상륙이 실행되었다면 영국도 전화의 잣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다음과 같이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자기 영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 전쟁에 지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자기 영토를 전쟁터로 삼아 승리하는 것도 바보 같은 것이며,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공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첫째가 전쟁 억제력이고, 둘째가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걸프전에서 증명되었듯이, 강력한 공군력은 전쟁 승패의 결정력이 된다. 고도의 정밀 유도무기를 갖춘 스텔스의 출현은 적의 핵심 시설에 제한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 능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우리는 미래전을 준비함에 있어 공군력 건설이 우선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된다.

## 새시대를 지향하는 공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괴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건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총진군’을 운운하면서, 동해안 잠수정 침투와 무장간첩 침투 등 연이은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이미 북괴는 상당량의 생·화학 무기와 스커드 미사일 등 운반 체계까지 갖추었음은 물

공군도 구성원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뭉쳐놓는다고 해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없다.  
역시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원리,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경쟁에 들어섰다.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인도와 이스라엘이 손잡고, 파키스탄은 다시 이란과 손잡고, 일본은 인도에 경제 지원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大中華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원양 해군, 전략형 공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지나해를 內海化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방위 지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주변국에 군대를 파견할 근거를 마련했고, 전수방위 지역 확보를 위해 FSX 사업 추진과 잠수함 전단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21세기 국가 지향, 군의 지향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침단의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강인한 정신력

무턱대고 낱알의 벽돌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타지마할 궁전이 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색깔의 전등을 모아놓는다고 화려한 네온사인도 되지 않는다. 개체의 힘이 전체가 될 수 없듯이, 거기에는 부분을 전체로 묶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공군도 구성원 하나하나를 단순하게 뭉쳐놓는다고 해서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없다. 역시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원리, 바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군에게 정신

무장이란 총칼과 수류탄을 들고 장렬하게 백병전을 치르는 용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352대라는 경이적인 격추 기록을 이루었던 독일의 에릭 하트만은 상사 빔벨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술회하였다. 것처럼 강한 공군은 최첨단의 무기 체계보다, 우수한 두뇌 집단보다, 책임을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고귀한 정신 무장을 갖춘 집단인 것이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 로마는 한두 사람의 손에 영광을 이룬 것도 아니다. 노블레스 오브제(Nobles Object), 즉 자유를 가진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였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날 안시성에서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시민으로서의 자기 책임이 지금 우리 공군에게 필요함을 인식하자. ⚡





# 기동성 뛰어난 우리 공군의 주력기 F-16(Fighting Falcon)

미국은 전통적인 F-4 및 F-15, F-14와 같은 대형 중량 전투기를 주력기로 선호하여 왔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월남전의 장기화에 따른 전비 부담의 증가로 국방비에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으며, 기동성이 좋은 MIG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대공 전투용 경량 전투기의 개발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형 경량 전투기(LWF : Light Weight Fighter)를 개발함으로써, 대형과 소형 전투기를 병합한(Hi-Lo Mix)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 F-16, 공군의 대표적인 주력기 중 하나

F-16은 바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 우리 공군에 도입되어 가장 대표적인 주력기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F-16은 비행 조종 계통에 세계 최초로 FBW(Fly-By-Wire) 시스템을 채택한 항공기로 정적 안정을 최소화하였으며 기동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엔진은 F-15와 동형(P&W F-100 이후 F-110 사용)이나 단발엔진 단점 보완 장치인 비상 동력원(EPU)를 탑재하여 안정성을 높였다. 설계에 있어서는 수평 꼬리날개의 면적을 확장

함으로써 주의 밀면 하중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수직 꼬리날개를 높게 설계함으로써 방향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세계 곳곳의 하늘을 지키는 첩병

F-16 전투기는 지난 1981년 6월 이스라엘 공군이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했을 때 2,000파운드의 폭탄을 싣고 540마일 밖에서 목표물을 폭격함으로써 대지 공격 및 항속 능력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1991년 1월 걸프전 당시에는 다국적군의 주력 전투기로 210대가 참전하여 총 11,000회의 출격으로 바그다드 주변의 전략 목표를 공격하여 성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미공군의 F-16A/B는 주야간 대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능이 개량될 것이다. 최근(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는 추가 성능 향상이 예상되는 F-16E/F(블록60) 80대를 2002~2004년間に 구매할 계획으로 있어, F-16의 이같은 세계적 운용 전망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 주요 성능 및 제원

최대 속도 : 마하 2.0 이상, 실용상승고도 : 50,000피트(15,240m), 전투행동반경 : 500마일(925km), 최대항속거리 : 2,099마일(3,890km), 추력 대 중량비 : 1.1:1, 최대 이륙중량 : 42,300파운드(19,187kg), 추력(F-16C/D→블록50 기준) : 29,000파운드

# “공군의 참모습 보여줄 계획...”

건군 50주년 국군의 날 제병지휘부 공군 지휘관 **배창식 준장**

건국 50년, 건군 50년의 대희년(大喜年)을 맞아 공군을 대표하는 제병지휘부 공군 지휘관으로 10월을 맞는 그의 감회는 새롭기만 하다. 창운의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공사에 입학하던 69년, 그는 새내기 공사생도로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M1소총을 들고 마포에서 동대문까지 씩없이 걸으면서도 공군의 미래를 책임질 공사생도라는 자부심으로 힘든 줄 모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사를 졸업하고 일선 전투 조종사로서 거침없이 조국 하늘을 날던 소령 시절('84년), 그는 공중 분열 전투기 편대의 선두에서 Fly-by를 이끌었다. 이제 장군이 된 그는 전투기 50여 대와 공사생도들을 비롯한 1,300여 명의 도보부대를 지휘하여, 세계에 한국 공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공군 지휘관의 이름으로 국군의 날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항상 열심히 현재를 살자’라는 직업 의식으로 30년 가까운 군생활을 해왔다는 그의 품모에서는 매섭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수도자다운 기백마저 엿보였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공군의 참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하는 배장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지난 69년 씩씩하게 시가 행진을 하던 생도 시절의 패기가 역력히 배어 있었다.

그가 선두에서 지휘하게 될 제병지휘부 공군 전요원들은 21세기형 강한 공군의 모습을 국민과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커다란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리 전우들 모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고 건강히 돌아 오길 기원해 본다. ⊕



글 · 소령 강성구 / 사진 · 상사 조성권

# 신대방 395번지에서 띄우는 편지

## 보라매 공원에서 띄웁니다

당신이 의미를 두었던 그 나무들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계단 옆에 꽃비를 뿌리던 나무를 기억하시는지요.

영화에서라면 모를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기억의 창고에는 늘 시간이 멈추어 있고, 그곳에 가면 더러는 바래고 더러는 더욱 선연하게 빛나는 세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눈물나게 아프다 해도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당신 기억의 창을 열면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십니까? 느티나무 길과 호수와 너른 잔디밭과 언덕 위의 삼각지붕,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하던 청년의 사랑과 우정과 희망을.

보라매는 지금 공원입니다. 진입로 양쪽에는 서울 중심가에서도 보기 어려운 초고층 빌딩숲과 병원과 아파트가 굽어보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에 들어서면 초록빛이 가득하고 저녁 무렵엔 소박한 연인들과 가족들이 잔디에 오손도손 자리를 펴니다.

가슴을 저리게 하는 지난날의 가을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도 가을은 그렇게 아름다

울 것입니다.

## 보라매가 떠난 후 ...

하늘을 나는 보라매가 떠난 그해 겨울 우리가 이곳에 자리잡았습니다.

‘보라매 청소년회관’

기둥만 두고 이리저리 공간을 바꾸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12년을 넘겼습니다.

청소년회관 초기에 고교생이었던 친구가 첫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왔었습니다. 그에게 보라매는 청소년기의 폭풍을 비껴가게 해주던 쉼터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이들 모임방을 들어서던 신사 한 분이 생각납니다. 생도 시절을 이곳에





서 보냈다면 둘러보아도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향수 어린 곳이라 하시더군요. 아마도 그분은 발길을 돌리면서도 여전히 젊은이들을 품고 있는 옛터를 가슴에 담았을 것입니다.

#### 고향, 마음 속의 그림

누구나 그렇듯이 청소년기는 그 사람의 성장기에서 가장 예민한 시절을 관통합니다. 절대로 비켜가지 않지요. 그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열리기

를, 확고함과 함께 유연하고 관대함을 배우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옹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고향은 분명한 지변을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음 안에 자리하는 그림이지요. 40년 그 이전부터 젊은이들이 부대끼며 성장하던 이곳은 마치 신기루처럼 지금도 유리벽 빌딩숲 가운데서 생명을 지키며 향기롭게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눈에 그려지던 그 풍경 그대로 겨울 아침엔 흰눈이 하얗게 빛납니다. ❄️

김춘아/보라매 청소년회관



# 해미읍성에 잠들어 있는 역사

해미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표지판 2개가 눈에 띈다. 하나는 '해미읍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 순교 성지'라고 씌어진 것이다. 이제까지 산성이나 토성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읍성은 생소한 것이었다.

해미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해미읍성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적 제11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해미읍성이 다른 산성이나 토성과 구별되는 것은 평지에 축성된 석성(石城)으로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조선의 읍성으로는 이곳 해미읍성 외에 전남 성주의 낙안읍성, 전북의 고창읍성 정도를 꼽을 수 있으나, 이곳 해미읍성이 옛 모습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 일찍이 충무공과 정약용이 머물던 자리

해미읍성의 규모는 높이 5m, 길이 1,800m, 총면적이 61,417평(성내 57,122평, 성외 4,335평)에 달한다. 일찍이 이곳에서는 충무공이 병마절도사영 군관으로 부임하여 10개월간 근무하였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었던 곳이었으며, 조선말 천주교 박해 80년간 1천여명의 순교자가 처형된 천주교인들의 성지이기도 하다.

海  
美  
邑  
城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에게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크고 작은 유적  
지나 명소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해미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97년 전속을 오게 되면서였다. 고향이 경상도  
인 나로서는 충청도의 이 작은 마을이 무척이나 낯설었으며, 더욱이 해미리라는 곳  
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해미 중심에서 운산 방면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가면 담쟁이가 붙어 있는 해미성의 성곽이 보인다.  
지금까지 5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조선시대 읍  
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성은 서해안을 침범  
하던 왜구를 막기 위한 성이었다. 해미성으로 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성의 남문인 진남문(鎭南門)을 통  
과해야 한다. 진남문은 성의 남문으로 화강석으로  
무사석축으로 쌓은 구름다리 모양의 홍예문 위에 정  
면 3칸 측면 2칸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성의 성곽 역  
시 화강석으로 쌓은 것으로 아래 부분부터 위로 오르며 돌의 크기가 작은 편석 쌓기  
한 것과 후상단부를 미석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 곳곳에 배어 있는 옛 선조들의 숨결

진남문을 지나면 북쪽으로 나 있는 진입로가 하나 보이는데 이 길은 호서좌영으로  
향하는 길이다. 또한 이 길은 읍성내의 장터길이었다고 한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였음을 잠작게 하는 유일한 유적이다.

### 여섯골에 남아 있는 순교자들의 흔적

진남문에 올라 호서좌영을 향해 서면 왼쪽편 성곽의 서문과 오른쪽 성곽에 있는 동문을 볼 수 있다. 동문과 서문은 사각문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특히 서문은 천주교인들의 순교지로 알려져 있다.

서문 밖을 나서 약 10여미터 떨어진 곳에는 서문밖 순교성지 순교현양비와 자리개들이 있다. 자리개들은 길이 420cm, 너비 150cm, 두께 30cm로 서문밖 사형장의 개울 위에 있던 돌다리로 천주교인을 들어 자리개질하여 죽이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해미성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16m 높이의 순교탑이 있으며, 순교탑 앞을 여섯골이라 부르는데 이는 천주교도 생매장시 천주교도의 죽음에 앞서 예수와 마리아를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를 '여수머리'로 알아들은 주민들이 이를 여섯골이라고 불러 전해진다고 한다. 이 성스런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손꼽히는 유적지로 해마다 수만명의 천주교인들이 찾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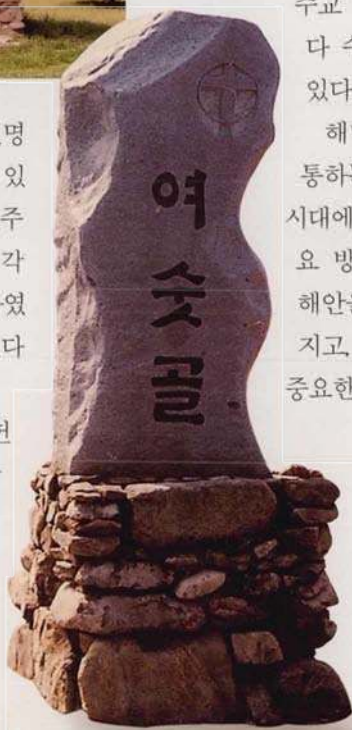
해미는 서산에서 홍성과 천안으로 통하는 덕산을 연결하는 곳이며, 조선 시대에 서해안의 왜구를 막기 위한 중요 방어 지역이었다. 또한 지금은 서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갈 중요한 거점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

글·중위 김준진(20전비)  
/사진·상사 한홍석



길 우측편에 6백여년 된 회화나무(일명 호야나무)가 성의 옛 옥터 자리에 서 있다. 이 나무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흔적으로 충청도의 각 고을에서 잡혀온 천주교인들을 하옥하였다가 교인들을 고문하는 데 이용하였다고 한다.

호서좌영의 관아문을 들어서면 동헌이 보인다. 이것은 해미현감이 병영장(兵營將)과 인근 12개군의 병무행정과 종3품의 포도대장 업무를 관장하던 집무실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한편 이곳은 이 성의 현감이 다른 곳과는 달리 이 지역의 행정권, 사법권, 병무권까지 가졌던 실력



## 내분비 장애 물질이란 무엇인가?

언제부터가 환경 호르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 호르몬의 명칭을 '내분비 장애 물질'로 통일하였는데, 이것은 생태계 및 인간의 생식 기능 저하, 기형, 성장 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PCB, DDT, 다이옥신 등 약 70여종)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오존층 파괴나 지구 온난화 문제와 함께 세계 3대 환경 문제로 등장하였다.

내분비 장애 물질이 생태계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호르몬 분비에 불균형을 가져오거나 생식 능력에 지장을 주며(정자수 감소), 심지어 생식 기관의 기형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생장을 저해하

고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까지 저해시킴으로써 각종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내분비 장애 물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되도록 지방질이 많은 육류보다는 곡류, 채소, 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선택하며, 전자렌지에 플라스틱 또는 랩으로 음식을 석워 데우는 일을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1회용 식품 용기 사용을 자제하고(끓는 물을 가하여 10분 이전에 섭취할 경우는 무관), 금연이나 살충제·세제 사용 억제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폐건전지, 폐형광등, 파손된 수은온도계 등의 유해 폐기물 처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본 환경처

### 장군이 원하는 한 권의 책

## 리더와 보스

— 준장 장희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조직체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그 조직은 리더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좌우되어 왔음을 역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군의 간부는 조직체가 크든 적든 부하를 거느리게 되고, 관리자 또는 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훌륭한 지휘관이나 부하들이 충심으로 자신의 지휘 통솔에 신뢰를 갖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는 이론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성격과 성장 과정, 그리고 지휘 기법 차이 등의 다양한 요소 때문에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쾌한 정답이 없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 정답에 근접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홍사중 씨의 『리더와 보스』(세계절출판사)는 바람직한

지도자(리더)로서 이름을 날렸던 동서양 위인들의 덕담에서부터 그 원칙과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딱딱한 제목에 비해 내용을 쉽게 풀어씀으로서 누구에게나 공감이 가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다.

“본인은 비행단 지휘관 참모의 생일 기념으로 이 책을 선물한다.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들이 보스가 아닌 진정으로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 공군의 미래를 비취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 우리 곁에 재즈가 있다

— 루이와 찰리를 통해 재즈 맛보기

우리는 거리를 지나면서,  
TV 연속극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혹은 카페에서 이미  
재즈를 듣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스탄 게츠의 무슨무슨 곡을  
들어봤느냐고 하면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곡은 이미 광고를  
통해 당신의 귀에 익숙해져 있다.  
다만 그것이 재즈인지를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한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즈 열풍이 불었다.

Kenny G, 소프라노 색소폰 하나를 일본도처럼 들고 세계를 누비며 한반도를 평정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금발의 뮤지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90년대를 관통한 재즈 열풍은 그 거품이 많이 가라앉은 지금에도 재즈 매니아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 거기에 재즈가 있다

재즈, 우리는 더 이상 재즈를 미국의 음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미 재즈는 세계의 보편적인 음악 장르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우리는 거리를 지나면서, TV 연속극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혹은 카페에서 이미 재즈를 듣고 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스탠 게츠의 무슨무슨 곡을 들어봤느냐고 하면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곡은 이미 광고를 통해 당신의 귀에 익숙해져 있다. 다만 그것이 재즈인지를 모르고 듣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Rock 매니아를 보면 그들이 그 부류의 계통도를 쭉 꿰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계통도의 복잡함이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게 그거 같은데 미세한 차이를 잘도 구분해서 계통도를 그리고

있다. 그것이 Rock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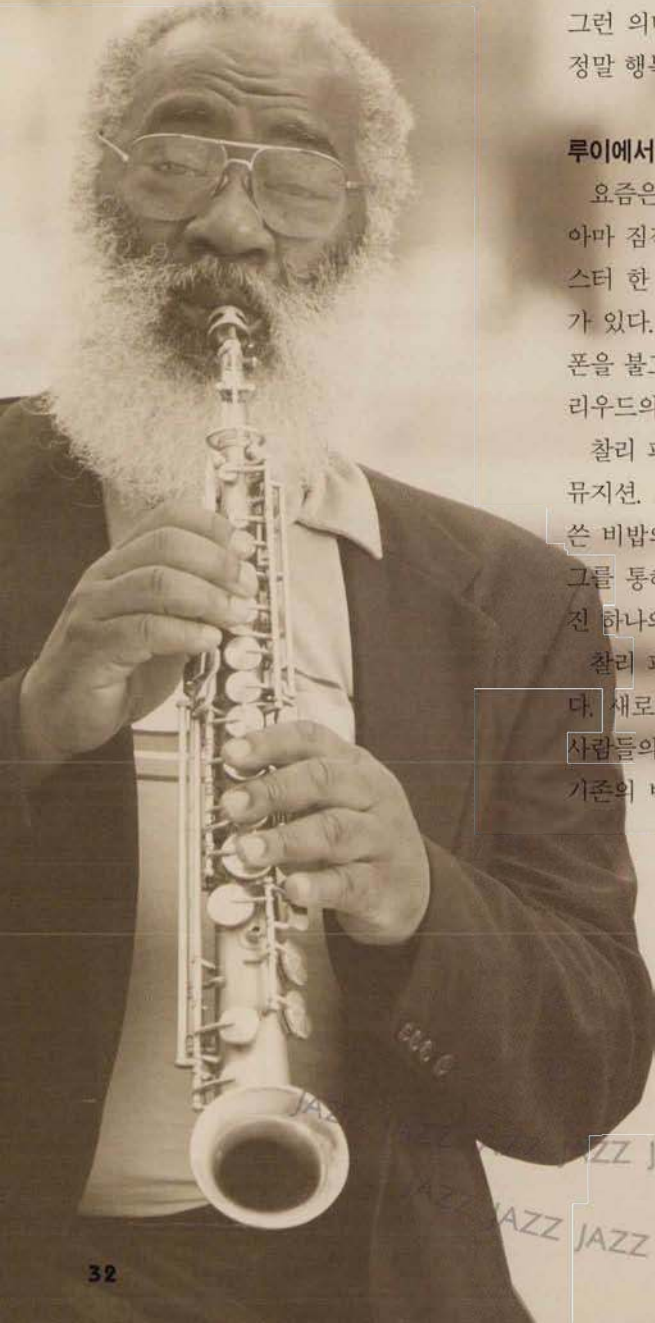
재즈 역시 역사가 있다. 오히려 Rock의 계통도보다 한결 복잡하고 뮤지션들의 이름은 생소하기 그지없다. 여전히 그 음악이 그거 같다. 그래서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재즈를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계통도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재즈를 듣는다는 것이 그 역사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즐기면 된다. 방안의 조명을 조금 줄이고 위스키 한잔, 맥주도 좋고 커피도 상관없다. 다만 당신이 사색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당신이 흡연자라면 담배를 준비하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면 재즈를 즐길 준비로 충분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재즈는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피곤한 일상에 지친 당신의 정신에 활력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즈가 있다.

#### What a wonderful world!

헐리우드의 늙지 않는 요정 맥 라이언의 〈프렌치키스〉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도 기억할 것이다. 그 곡은 루이 암스트롱이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잠미밋 인생〉을 번안하여 부른 곡으로 이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루이 암스트롱.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클래식에는 베토벤, Rock에는 비틀즈가 있다면 재즈에는 루이가 있다. 루이가 과연 재즈 아티스트인가를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의 앨범을 들어보면 우수 어리고 단순하다. 어떤 곳에서는 조금도 재즈적인 요소가 없다. 거기다 공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만담을 지껄인다. 다분히 통속적이고 상업적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 오랜 시간 동안 명멸해간 수많은 재즈 아티스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를 통속적인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만들어낸 영화 음악이나 Pop만을 듣고 하는 말이다. 사실 그가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분야도 이 분야이다. 여건이 된다면 그가 재즈계의 혁신 주자로 활약하던 1920년대에 녹음된 음반을 들어보자. 그는 분명 혁신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 그리고 관조의 시대를 모두 거친 거장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어려서는 불량 소년이었다. 소년원에 들어갔던 그는 트럼펫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트럼펫을 잘 불기 위해서 칼로 작은 입술을 찢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그는 18세에 밴드에서 활동하고 동시대의 재즈 뮤지션을 만나면서 뛰어난 트럼펫 솜씨,



풍부하고 독특한 성량의 보컬로 빛나는 재즈 시대를 주도하게 된다. 그는 이후에 로이 엘드리지, 빌리 홀리데이 등의 기라성 같은 재즈 가수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후에 벌어지는 화려한 재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다.

루이는 대중적이라는 일반적인 평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보기 힘든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자신의 분야에 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짹짹거리는 것이 아닌, 정말로 다방면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그의 재능이 재즈를 기초로 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What a wonderful world!"

### 루이에서 찰리로 이어지는 재즈의 계보

요즘은 영화 포스터로 실내 코디를 하는 카페가 많다. 아마 짐작컨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방에도 영화 포스터 한 장쯤은 붙어 있을 듯하다. 그중에서 이런 포스터가 있다. 약간은 보랏빛이 나는 짙은 남색의 바탕에 색소폰을 불고 있는 한 흑인 사내의 모습. 영화 <Bird>이다. 할리우드의 재즈광,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작한 영화이다.

찰리 파커. 천재라고 불려도 조금의 손색도 없는 위대한 뮤지션. 그는 창조자이다. 대공황이 끝난 미국 사회를 휩쓴 비밥의 열풍이 그로 인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를 통해 재즈가 단순한 춤곡이 아닌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찰리 파커의 사운드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영화에 의하면 그는 기존의 밴드에서 나오게 되고 때로는 헛간에서 연주회를



하면서 순회를 하게 된다.<sup>1)</sup> 그리고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 어필을 하게 되고 그는 거장이 되었다. 이전보다 진지하고 뮤지션의 열정을 거르지 않고 표출한 재즈, 비밥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그의 사후, 재즈계를 떠맡아 발전시킬 또 하나의 거장 마일즈 데이비스가 찰리 파커로부터 음악을 배웠다는 것이다. 마일즈는 쿨 재즈에 이어 퓨전 재즈를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풍부한 음악 세계를 유감없이 펼쳐보였다.

### 너희가 진정 재즈를 믿느냐?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인해 영국에서 활약중이던 노장 밴드 Queen을 접하게 되었다. Queen은 음악적 편식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는 그 영역을 넓혀준 고마운 밴드이다. 그 이후로 나는 Rock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Rock이라는 장르가 왜 저항을 노래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한번 넓혀진 관심의 지평은 끝간 곳이 없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되었고, 지금은 세상의 모든 음악의 원류가 심장의 뛰는 박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발생한 곳이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만 원류가 같다면 그 본질마저도 같다는 성급한 결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각 장르의 선두들이 장르를 파괴하면서 벌이는 퍼포먼스를 보면 음악의 동질성을 느끼게 한다. 운문사의 새벽 예불 소리와 그레고리안 성가의 유사성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1) 『재즈 속으로』 이종학 지음, 새로운사람들 펴냄, 60쪽

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특정한 장르를 고집하면서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일종의 결벽증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음악에도 사이비는 있다.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것은 그런 사이비 음악이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이외의 장르가 아닌 것이다.

재즈는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선두에 선 음악이 아닐까 하는 선부른 생각을 해본다. 어떤 장르와도 융합이 잘 되고, 융합되었다고 해서 재즈의 관점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재즈는 음악과 음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장르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재즈 그 자체로도 분명 가치가 있다.

풍요로운 스윙재즈 비니 굿맨, 재즈의 바하 듀크 엘링톤, 멋진 세상을 노래하는 재즈맨 루이 암스트롱, 재즈계의 쇼팽 빌 에반스, 달콤한 보사노바 스탠 게츠, 피아노의 아방가르드 델로 니우스 몽크, 재즈의 복고주의 스코트 헤밀튼. 그들이 걸어 나오고 있다. 당신의 준비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재즈를 믿는다는 생각이면 된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다. IMF사태로 어렵다는 요즘, 겨우 새싹을 맺은 문화의 어린 순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요즘, 한번쯤은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안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방공포병학교 기지대대 병장 이석주

# 블라인드 워킹



최고의 조종사가 되는 일은 고도의 비행 훈련만큼이나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한 일이지요. 1년이면 몇 차례씩 있는 조종사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소하는 그 남자.

이번 훈련 과정에는 아주 특이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산길을 걷는 훈련이었지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한 사람이 먼저 눈을 가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산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블라인드 워킹'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끌어주는 사람의 손에만 의존해서 눈을 가리고 산길을 걷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온전히 손과 손끼리 믿음이 오고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지가 없

으면 잘 실행되지 않는 일이기도 했지요.

자신과 파트너가 된 동료 조종사에게 손을 맡기고, 그 남자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은 동료는 많이 긴장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 남자가 행여 발을 잘못 던거나 미끄러질까 봐 무척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이끌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광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은 누구나 자부심이 대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가끔 자기만을 믿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서로 믿고 협력할 때 몇 배의 효과를 낳기 마련이고, 특히나 호흡을 맞추어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조종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 못지않게 동료들과 신뢰감을 쌓는 일이 중요하지요.

완전히 인도자를 믿지 않으면 산길에서 구를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 '블라인드 워킹'을 통해서 서로를 믿고 맡겨보는 것. 그것은 어떤 작전 훈련보다도 귀한 훈련이었습니다.

손 끝에서 전해오던 그 믿음의 경험.

서로 믿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서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에서나 다같이 소중한 일임을 그 남자는 느꼈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잊지 않겠다고, 특히 하늘에 떠 있는 동안에는 더욱 잊지 않겠다고 그 남자는 생각해 봅니다. Ⓡ

김미라(방송작가)

## HAM, 매력 만점의 아마추어 무선

“CQ, CQ, 긴급. 여기는 DS2KBE/M3 차량 전복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합니다!”

1998년 1월 30일 22시 19분, 무전기를 통해 나오는 급한 목소리.

“DS2KBE/M3 여기는 DS3EYH 145.02에서 수신합니다.”

교신에 응하여 상황을 알아보니 공주직업훈련소 앞의 도로상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2대가 전복되었으나 핸드폰이 연결되지 않아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신탄진과 조치원 쪽에 교신이 되어 견인차를 사고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다.

### 천재지변이나 재난시 가장 큰 힘 발휘

아마추어 무선사는 늘 긴급한 구조 요청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금전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거나, 국가 이익에 손해되는 교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하는 등이 아니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도로 정보이다. 타 지방에서 온 손님(?)들이 길을 물을 때 아주 친절하게 그것도 원하는 위치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역시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지난 8월초 엄청난 피해를 안기며 지리산 지역과 중부 지역을 휩쓸었던 폭우와 그로 인한 가옥 침수, 교통 두절... 유무선 통신마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개인 이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아마추어 무선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는 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 세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순수한 개인 취미

이처럼 매력적인 아마추어 무선사는 소정의 국가자격 고시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하고 합법한 기준의 설비를 갖추어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과 전신(모르스), 음성, 영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순수한 개인 취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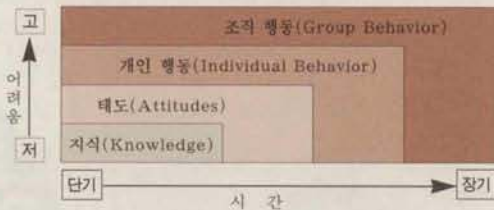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아마추어 무선을 통한 재미는 폐쇄되지 않은 무전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사 소통을 나누므로 건전하고, CQ(‘누구든지 나와 교신을 바란다’는 용어)를 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신이 이루어진 곳의 문화, 풍물, 특산물 등을 접할 수 있어서 좋다. 어쩌다 객지에서 CQ를 냈을 때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 📍

글 · 공본 리명두

# 청예 공군인 육성 방안

청예 공군인 육성 방안연구위원회 대령 심우섭

청예 공군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우선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세웠다(그림 1 참조). 즉, '개인과 공군 조직(구조·체계, 환경)의 변화' 전략을 추구하였다. ① 새로운 지식 정보 제공으로 공군인 '지식 수준'을 변화시켜, ② 공군인 '태도·개인 행동 수준'을 변화시키고, ③ 공군의 '조직 행동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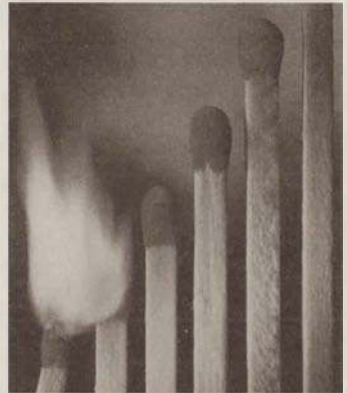
〈그림1〉 청예 공군인 육성 추진전략

##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 공군인에게 인내를 위한 라이트 형제의 '147 교훈 정신'을 소개한다. 1903년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첫 비행(120피트 고도, 12초간)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47회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교훈은 어쩌면 항공력 사상의 뿌리이며 우리 선배들의 정신으로, 반드시 우리 것으로 내면화시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10회 또는 20회에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우리의 업무 의식인 '빨리 빨리' 환경에서 이러한 147 교훈 정신은 쉽게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 다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지휘관의

강한 실천 의지와 지속적인 참여와 중간간부의 공감대하에서 객관적이고 현실성있는 방안 제시, 공정한 평가를 통한 보상(진급, 근무평정, 성과급, 교육 기회, 근무연장, 포상 등) 및 피드백, 관련된 현행 규정, 지시와의 연계성 등이다.



**태도·행동**  
태도는 쉽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당신의 태도는 행동으로 옮겨질 가치가 있는가!

##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이자

세계화 시대에서는 지식이야말로 공군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부를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공군 문화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현재 가용자원이 약한 공군으로서 예산이나 인적 자원이 제한되므로 두뇌의 힘, 즉 지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공군 창설 이래 공군 군사 교육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여러 차례 개선을 실시하였지만, 다가오는 지식·정보화 추세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군사 전문 교육 체계 발전과 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공군사관학교는 공사 장기 발전 기획서 2020, 공군대학은 교육 체계 개선 등 여러



정예 공군인 육성 방안의 철저한 실천은 공군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보증과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의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교육 기관별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정예 공군인상과 가치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변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는 공군인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표1 참조)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방안 중 '학생에 의한 강의 평가 제도'는 일부 논란이 있었다. 즉, 우리 한국의 의식 구조 및 문화에서 학생이 스승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 대학도 아닌 군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며, 현재 공군사관학교 수준의 설문조사 또는 그 결과를 개인에게 알려주는 정도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은 연구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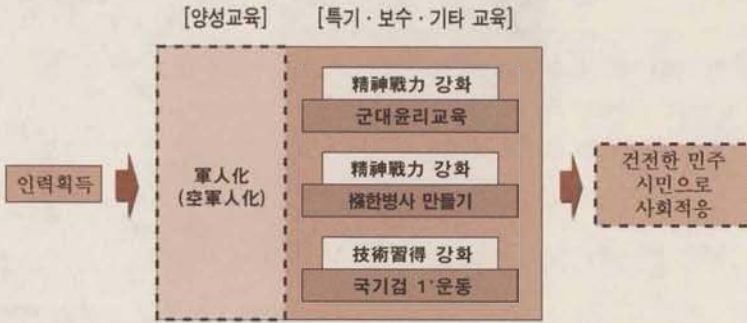
적 위주의 교수 평가를 지양하고, 교관의 행정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의 태도·개인행동 수준을 바꾸자

지금까지의 군에 대한 인식은 사회의 타 분야와 분리되어 군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사뭇 달랐다. 그러나 21세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국민은 군대나 군인을 일반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요청에 따라 일반 사회의 가치관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고 방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의 국민교육 도장화는 우리 공군이 앞서서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태도와 개인 행동 수준

과 제	현실태(문제제기)	시행방안
교육체계·환경개혁	• 공군군사교육위상 하락, 종합적 비전 빈약	• 평시 교육훈련 우선정책 추진 (지휘관, 교관 및 학생선발 등)
교관 평가제도 개선	• 교육의 주체인 교관들의 講義 質 향상 필요	• 학생에 의한 교관평가제도 개선 및 적용 확대
부대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 교육 종류 및 주관부서 다양, 내실화 부족	• 각종 교육내용, 수준 및 요구량 재조정
지식·정보 교류체계 발전	• 군내·외 교육자료 활용 제한	• '가상 공군대학' 설치 • 매년 논문요약집 발간
공군대학 교육성과 제고	• 우수교관 선발제도, 지휘관급 강의 부족	• 교관총원절차 개선, 지휘관 강의시간 마련
정보화 기술교육 강화	• 공군인 전산운용, 정보 마인드 수준 저조	• 정보화 기술교육강화, 능력 수준 평가, 인사고과 반영
조종사를 위한 프로그램	• 조종사 지식수준 저조, 전문경력관리 부재	• 이동교육팀 및 경력개발 전담부서 신설
교육·인사경력 연계성 증진	• 공대교육과 진급시기 현실성 결여 • 공군인 교육열의 부족	• 공대교육 성적의 적용 진급 계급 조정, 개인학력수준 진급평가요소 추가
하사관을 위한 프로그램	• 하사관 자질·품성교육 부재	• 하사관 '감독관리자과정' 개선

〈도표1〉 지식 수준 향상 과제



〈그림2〉 국기검 자격증 1\* 운동

을 변화시키는 핵심이 된다. 공군의 국민 교육 도  
장화 체계(도표2 참조)는 공군 장병들을 군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기여하는 훌륭한 시  
민, 즉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우선 군대 윤리 교육은 정신 전력 차원에서 공  
군인의 '높은 도덕관과 윤리관으로 무장' 하는 군  
대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전장병의 군대 관습  
(Customs)과 예절(Courtesies)을 규칙적으로 준  
수하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일일·주간 정신  
교육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1일 1건 주제발표  
및 행동실천'을 실시하고, '전장교의 교관화'가  
절실하다. 또한 부대 그 자체가 교육의 터전이며  
진정한 학습장으로 새로운 변신을 하는 '전부대  
의 교육장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건강한 신체 단

련과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 습  
득(국기검 1\*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군 병영의 국민 교육  
도장화는 "훌륭한 시민  
은 언제나 훌륭한 군인  
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훌륭한 군인은 항  
상 훌륭한 시민이 된다."

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다(도표2 참조).

### 우리의 조직 행동 수준을 변화시키자

조류학에서 기러기는 올바른 대형(Right  
Formation)으로 함께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갈 때의  
두 배를 더 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꿀벌은 동물  
의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달된 사회 조직을 갖  
고 있다. 즉, 한 마리 한 마리의 벌들은 해야 할 전  
문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 우리 공군인 모두에게  
도 꿀벌 같은 각자의 직능과 임무가 있다.

연구위는 우리의 조직 행동 수준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참신한 공군 문화를 구현하는 것이며 '우  
리 모두가 기러기와 꿀벌처럼' 되는 기반 체계 및  
환경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마치 '가정에서 감춰진  
보물(가족의 전통)을 되  
찾고 알리는 것'과 같이  
공군 정체성 확립 계획  
(가칭: SKY 비전 21)과  
'자율'과 '창의성'이 넘  
치는 병영 생활의 명랑  
화 추진, 나무를 성장케  
하는 가지치기와 같은  
규정, 교범 및 지시 체계  
재정립 등을 마련하였다  
(도표3 참조).

과 제	현실태(문제제기)	시행방안
정신전력의 강화	• 공군인들의 도덕적 진공 상태, 간부급의 모범지도 부족,	• 군대윤리 교육 및 품성개발 • 전장교의 교관화, 전부대 교육장화
체력단련 강화	• 부대별 체육활동 불균형	• 부대체력활동 내실화, 장병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강한 병사 만들기	• 병사양성교육, 특기교육 및 전입신병교육 미흡	• 양성교육, 부대 근무기간 중 병사교육 개선
연합·합동작전 협동심 제고	• 연합 근무요원 및 훈련 참가자의 수동적 태도	• 연합 근무부서요원 사전영여 교육실시, 위게임 교육강화
의사소통 지침서 제정	• 의사소통능력 향상 교재 부재	• 의사소통지침서 제정 (미공군교범 <Tongue & Quil>)

〈도표2〉 태도·개인 행동 수준 변화 방안



### 단체정신(Team Work)

올바른 대함으로 함께 나는 새는 혼자 나는 새보다 두배를 더 갈 수 있다.

### 정에 공군인 육성을 위한 시행 계획

정에 공군인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현재의 공군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 신념화·행동화하는 모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생활에서는 점호 행사 강화와 현재 제한 실시(1, 2, 7, 8월 미 실시)하던 일조 행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였고, 소등 후 5분간의 명상 시간을 추가하였다. 1주 생활에서는 매주 월요일 일조 행사시 대대·부대·공군가를 제창하여 소속감을 함양하고, 매주 목요일을 '戰士人的 날'로 운영하여 전투복 근무 부대를 제외한 전 공군 장병이 전투복(조종복)을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써 군인 정신을 고양케 하였다. 매일 생활에서는 '정에 공군인 상'을 1가지씩 중점 주제로 설정하여 실천하고 4개월 주기로 정에 공군인 실천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훈공보실에서 추진중인 '1일 1건 정신 교육 운영'에 통합하여 정에 공군인 교육 및 행동 실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우리 모두 기꺼이 변하자!  
정에 공군인이 되자!”

정에 공군인 육성 방안의 철저한 실천은 공군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보증과 21세기형 강한 공군 육성의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이제 글을 맺기 전에 연구위원회 총괄 담당으로서 몇 가지 소감을 말하자면, 먼저 2개월간의 상임·비상임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단

장님의 연구 환경 배려에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안이 말의 잔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의 일을 만든다는 중압감을 내내 느껴야 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공군이 많은 계획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평가되고 분석되어 개정·폐기되는 등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 복잡한 시대에서 후배들에게 단순성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 기간중 크리스천인 본인은 지혜를 간구하였으며, 응답의 작은 체험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과 제	현실태(문제제기)	시행방안
공군 정체성 계획 추진 (가칭: Sky 비전 21)	• 정에 공군인 육성의 기반이 될 '참신한 공군 문화' 구현 요구	• 상위가치의 개발 및 홍보 - 공군비전·지표 공유화 - 공군정신 바로 알기 • 공군의 언어·상징체계 차별화 - 빨간 머플러, 하악복에 토시형 견장 재 착용 등 • 인물, 구두 및 물적 상징 구체화
병영생활의 명량화	• 병영생활 저변의 불합리한 관행 잔존 • 신세대 사병 의식구조 변화	• 사병간의 수평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내무실장 선발 및 자질향상 • 군 이외 민간 전문상담인 제도
규정, 교범 및 지시 체계 재정립	• 규정, 교범 및 지시와의 상충성, 현실성 미흡	•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전역장병을 위한 '직업보도실(가칭)' 설치

<도표3> 조직행동 수준 변화 방안

# 국기검 1+ 운동을 전개하며

## 국기검 1+ 운동,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노력

국가적인 경제 불황이 우리의 마음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은 경제 위기 속에 실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리해고 바람이 한겨울 한파보다 더 혹독하다. 이제 남보다 한발 앞서가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불안하여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현대를 자격증의 시대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분야마다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자기 관리의 핵심 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춰 공군 내에서 일고 있는 국기검 하나 더 갖기 운동은 매우 신선히까지 하다.

## 공군, 해마다 800여명의 유자격 기술 인력 배출

미래는 정보의 시대이며 변화가 많은 예측 불허의 시대이다. 이같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공군은 항공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과학군이요 기술군이기도 하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 역량이 조화롭게 운영되어 우주로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공군은 기계 분야 등 12개 분야 66종목의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800여명의 유자격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대한 각종 정보

우선 '98년도 2회 시험부터 달라지는 검정 제도가 있다. 군에서는 국민 교육 도장화의 일환으로 특기 관련 종목과 무관하게 응시 자격을 갖춘 모든 장병들에게 응

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특기 관련 해제 종목은 기종기 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저 운전, 로우더 운전, 로울러 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지게차 운전, 위험물 취급 1·2급, 정보처리 1·2급, 환경 등 12개 종목이다.

또, 시험 제도가 변경되는 종목은 정보처리기능사인데, 실기 시험이 서답형(필답형)에서 작업형으로 변경 시행하게 된다.

시험 볼 때 수검자가 지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언어처리 프로그램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수검자가 선택한 DOS용 언어처리 프로그램

- BASIC, COBOL, C(C++ 포함) 언어 범주 프로그램 중 1가지

- VERSION 및 제작업체 무관 (1 SET)

(WINDOWS용 언어처리 프로그램을 선택한 수검자는 해당사항 없음)

※ DOS용 언어처리 프로그램 지참시 3.5"로 준비

※ WINDOWS용 언어처리 프로그램은 검정장 시설로 제공됨

- VISUAL BASIC 5.0 PROFESSIONAL EDITION

- DELPHI 3.0 PROFESSIONAL

- POWER BUILDER 6.0 DESK TOP

(계속)

※ 국가기술 자격검정 문의 안내 : (호) 1355 공군본부 교육훈련감실



# 적극적인 개혁으로 '달라지는 공군'

공군은 지금 달라지고 있다. 창군 이래 우리 공군은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이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공군 개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이다.

## '공군 개혁 5개년 계획' 적극 추진중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는 상존하는 적의 도발 위협과 미래의 안보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1세기형 강한 공군력 건설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은 "군개혁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기필코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업인 만큼 공군이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다 확고한 전쟁 억제와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군구조 개선과 경제적 군운영을 위한 국방 관리 제도 개선, 인력 운용의 효율성 증대, 군사 전문교육 강화, 정예 공군인 육성 등 공군 자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심층있게 도출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박총장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군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부는 물론 전장병에 이르기까지 개혁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의지를 한데 결집하여 강한 공군력을 건설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공군이 되어야겠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 전장병의 노력과 의지로 '강한 공군력 건설'

이에 공군은 지난 4월부터 '공군개혁 추진위원회'를 편성하고, 특히 분야별 영관장교들로 구성된 군구조, 방위력 개선, 인사·교육, 국방 관리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 이들 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심의와 계층별 간담회 등을 통해 총 5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추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중점은 ▷작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부대 구조 발전 ▷방위력 개선 사업 체계에 대한 효율성 제고 ▷능력 위주의 인력 관리 체계 조기 구축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 교육 체계 정비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한 국방 관리 제도 개선 등이다.

공군은 금번 개혁을 통하여 공군 전력의 신속한 대응 능력 향상은 물론, 공군력 운용의 효율성·경제성·전문성·책임성·합리성 제고 등 개혁 5대 원칙을 충족시킴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강한 공군력 건설' 조기 육성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

공본 전략기획처 중령 홍순만



내가 스페인에 도착한 때는 '95년 6월말경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호텔이나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에어컨이 설치된 건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신기하였는데,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 아름다운 옛 전통이 고스란히 간직된 도시

시내 한복판의 온도계는 40°C를 뺏고 있었지만 그늘에 가면 습기가 없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현대적인 건물이 적은 것이 산업 발달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전통적인 건축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 심지어 카페나 상가 건물들조차도 수백년 이상 된 건물들이다. 흔히 '유럽하면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도시의 미관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공부했던 공군대학만 해도 그렇다. 공군대학 건물은 1571년에 필리핀을 정복했던 펠리페 2세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도원인 엘 에스꼬리알(El Escorial: 1984년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라는 수도원을 모방하여 1958년에 프랑코(Franco) 총통의 지시에 의해 건축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외관이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대리석 조각물과 벽화와 천장화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있다.

### 가정적이고 낙천적인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의 첫인상은 게으르고, 놀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러나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스페인 사람들은(아니 어쩌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와는 사고 방식이나 생활 양식에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기생에게 남자끼리 저녁때 술 한잔 하자고 하였더니, 그 친구는 난색을 표하면서 집에 가서 부인과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서 그러자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부인도 싫어하니 자기집으로 나의 가족과 함께 몇날 몇시에 올 수 없겠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의 가족 중심의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롯된 나의 작은 실수(?)였다.

식사에 초대하면 식사와 함께 포도주나 약간의 주류는 필수적인데, 결코 취하는 법 없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새벽 두세시에 자리를 떠도 정중한 양해를 구하고 나와야 할 정도이니 그들이 얼마나 파

나의 유학기

스페인에 가면

‘사람’이 보인다



티를 좋아하는지 알 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페인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어떤 때는 미안해서 길을 물어보지 못할 정도인데, 상대방에게 길을 설명해주다가 정 못알아듣는다고 생각되면 직접 데려다줄 정도로 친절하다.

### 스페인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

스페인에 사는 어느 교민의 체험담이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 운전'으로 수배되었다고 즉시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연인 즉, 몇달 전 지중해 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한국에서와 같이 사고 현장을 별 생각 없이 지나쳐갔다고 한다. 그런데 스페인의 교통법은 우리와 달리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경찰에 연락을 하거나 부상자가 있을 때는 응급 또는 후송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법을 모르는 그 교민은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에 의해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경찰관들에게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벌금을 물고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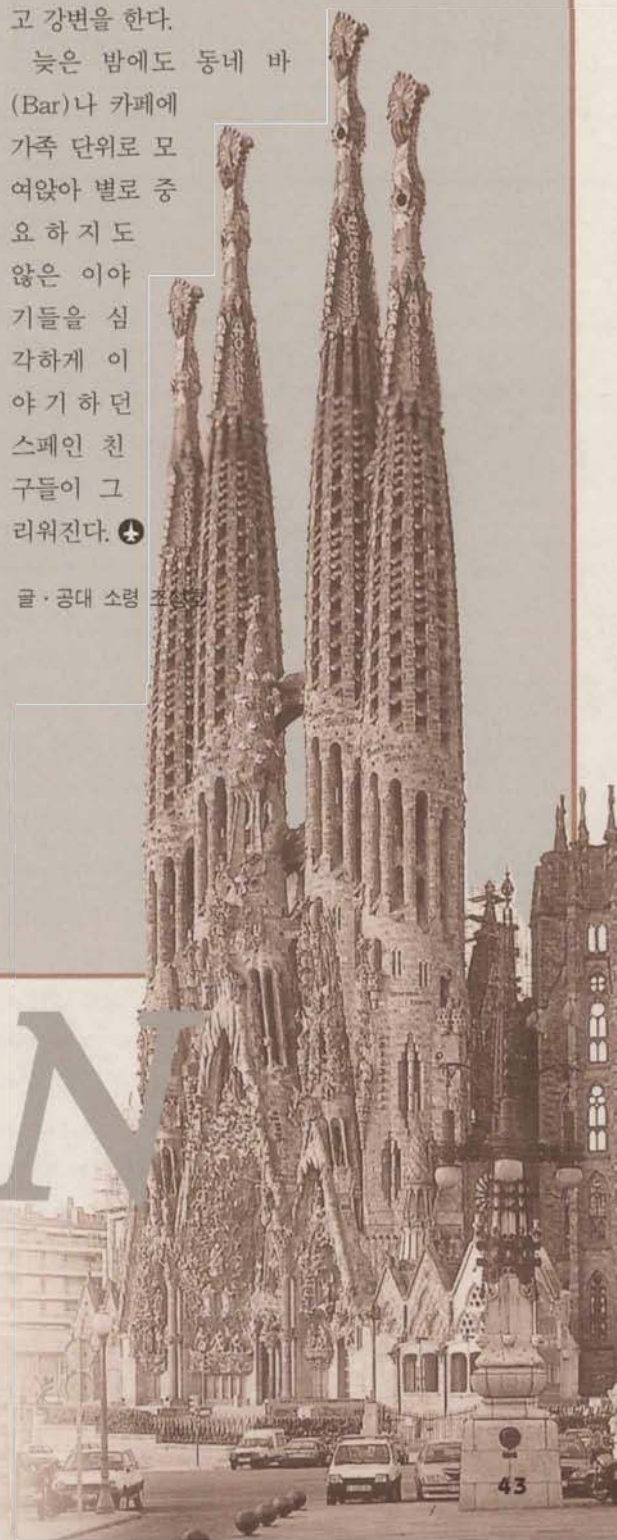
스페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투우와 플라멩고 춤을 들 수 있는데,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엿

보게 해준다. 투우를 보고 너무 잔인하다고 비아냥거리면 스페인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니다, 투우는 예술이다"라고 강변을 한다.

늦은 밤에도 동네 바(Bar)나 카페에 가족 단위로 모여앉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이야기 하던 스페인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

글·공대 소령 조상호

# SPAIN



# 젊음의 치기가 넘치던 대전 교육사 시절



맨 위가 하사시절의 필자

가슴에 항상 불덩어리가 들어 있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변화가가 됐지만 우리가 주둔했던 72년 대전시 유성구 탄방동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다. 뒤에 보이는 창고 같은 건물은 당시 우리들이 음악의 열기로 추위를 이기며 한국 최고의 화음을 만들어내자는 패

기와 투지가 빛나던 내무반 겸 연주 연습실이었다.

육군 3관구 군악대가 있었지만 대전 시민들은 늘 우리 공군교육사(당시 기교단) 군악대를 불러 주었다. 당시 유행하던 '섬마을 선생님' 부터 '베사메 무쵸' 까지 우리의 연주 영역은 그야말로 All Round Play였고 특별한 문화 행사가 드물었던 시절이라 우리의 인기는 하

늘을 찌를 듯했다.

그시절 우리는 요즈음 병사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군이라는 자부심과 똘똘 뭉쳤던 단합심만큼은 요즘 후배들에게도 절대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내무반장이었던 나를 받쳐주던 옛전우들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하다. 그들과 함께한 나의 청춘이 오늘따라 더욱 그림다. ♣

준위 박성웅(본사 군악대)



\*원고 모집 : 군생활 30년 이상된 장교 및 하사관들의 젊은시절 사진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후배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고 개인사 속에서도 공군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 “IMF 때문에...”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중의 하나로 “IMF 때문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의 이 위기와 관련해서 단순히 IMF를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IMF 때문에”라고 말할까? 과연 다른 모든 원인들보다 IMF가 오늘의 이 위기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일까?

### 왜 “IMF 때문에...”일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알다시피, IMF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해결책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도 절실하게 요청한 것이다. 또한 IMF 측에서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비록 실행하기 힘들고 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일이고, 건전한 국가 경제와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격언은 이 경우에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위기와 관련해서 “IMF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셈이다. 문제의 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불만의 화살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무엇 때문일까?

###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고 인정해야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원인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적인 문제이고, 그 중에는 일반 국민들의 몫, 즉 국민 개개인의 책임 또한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지적은 사실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고,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실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린다면 이는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그에 바탕한 각성과 반성이 있고서야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10진바 줄위 윤재홍

#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지난 봄, 각종 훈련과 바쁜 업무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터라, 그 주 토요일은 기필코 나무실에서 완전 휴식을 취하리라 다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선임하사님께서 나더러 모험 항공기 대회 진행 요원으로 참가하라는 것이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대회가 열리는 주기장으로 향했다. 대회가 시작하기 30분 전쯤 되니까 참가 선수(초·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 및 인솔 선생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하늘에는 헬글라이더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서 우리 진행 직원들을 괴롭히는 개구쟁이들로완전 시장을 방불케 했다.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꺾꺾 참아가며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 조에 속한 초등학생 선수들을 찾아 줄을 세우던 중이었다.

바로 그때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순간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했을 듯이 움직였으며, 왠지 지껄한

소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긴 생머리와 해맑은 미소만이 나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이었다.

이윽고 대회가 마무리될 즈음,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나둘 주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아가씨 역시 선수로 참가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막 나가려는 참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발이 마지 땅에 얼어붙은 듯, 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내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붉으라푸르라, 등뒤에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후배 정일병이 “김상병님, 뭐하십니까? 지금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좋아! 용기라면 또 내가 한 용기 하지!”

나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후 그녀에게 달려갔다.

“저 잠깐만요, 초면에 실례인 줄은 알지만 너무 호감이 가서요.

저, 연락처 좀 알 수 없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러나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는 법. 나는 정신없이 이러쿵저러쿵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게다가 주위에 있던 꼬마 아이들까지 합세를 해서 결국 그녀의 연락처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때의 그 기쁨이란...

현재 우리는 자주는 못 만나지만 정성이 가득한 편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때의 일을 교훈으로 모든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친애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

‘용기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 여자다 싶으면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가가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입니다. Ⓡ

제10전투비행단 보급대대 상병 김운환

# 월드컵과 '아트 웨더(Art Weather)'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한 비결은 '아트 사커(Art  
Soccer)'에 있다는 분석기사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해 오던  
기술축구(브라질)와 힘과  
조직력(독일),

빛장수비(이탈리아)의 시대는  
가고, 위의 모든 것을 한데 묶은  
예술적 축구인 'Art Soccer'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최근 헨델의 <메시아>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 곡은 초연때  
감동을 받은 영국왕 조지 2세가  
일어난 일화 때문에 지금까지도  
합창 <할렐루야>에서는 모든  
관중이 일어나는 관례가 전해지는  
오라토리오<sup>1)</sup>다. 천재적인 작곡가,  
수많은 악기들의 오묘한 연주,  
뛰어난 기량을 지닌 독창자와  
합창단, 이 모든 것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면서 이끌어나가는  
지휘자,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맡은  
파트에서 뛰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평온함, 긴장과 환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메시아>는 연주 때마다 음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열광시켰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술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분석 기사를 쓴 사람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트  
사커'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세계적인 기량을 가졌지만  
개성이 뛰어난 선수들, 아랍인과  
흑인 그리고 백인 등이 혼재된  
인종 구성의 약점, 비판적인 여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4년 전부터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되  
이것을 하나로 조화시켜 나가는  
지휘자 등의 예술적 힘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아트 사커'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프랑스가 결승전에서  
보여준 경기 내용은 정말  
예술적이었다. 90분간 쉬지 않고  
뛰는 체력과 스피드, 일대일의  
대결에서도 브라질을 압도한 기술,  
전체가 하나같이 움직이는 정교한  
조직력은 축구를 전혀 모르는 내  
아내까지 감동시켰으니까 말이다.

이 '아트'라는 단어를 날씨 앞에  
붙여 '아트웨더(Art

Weather)'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 뛰어난 기술을  
갖춘 예보자 · 관측자들과, 24시간  
대기를 탐측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기상 장비, 요구되는 최상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와 전신망,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정교한  
기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예보  
결정자, 만들어진 기상 정보를  
적시에 가장 필요한 곳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원하는  
시스템 등이야말로 '아트 웨더'라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기상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아트 웨더'로서의 기상  
지원을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

공군 73기상전대 중령 반기성

<sup>1)</sup> 오라토리오(oratorio) : 종교음악에 속하는 서사시적인 악곡으로, 연기가 없기에 배경이나  
의상도 쓰이지 않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사계>가 특히 유명함.

# 진아는 아직 살아 있다

지난 보름간 동북아시아를 강타했던 수재는 엘니노 현상 말기의 기상 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 구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번 난리로 인한 이재민 숫자가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영내 S.R로 바뀐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프로그램도 이미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상부 지시에 의해 변경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S.R 기간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8월 12일의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충북 보은 지역으로의 대민 봉사였다. 수영 시합을 마치고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나서게 된 봉사 활동이라 처음에는 불안도 많았었다. 수해 지역에 도착해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마을길 어귀를 막은 진흙과 덩불을 치우다가 평생 고생만 해온 듯 시커먼 피부에 깊이 패인 주름살을 가진 작은 체구의 노인이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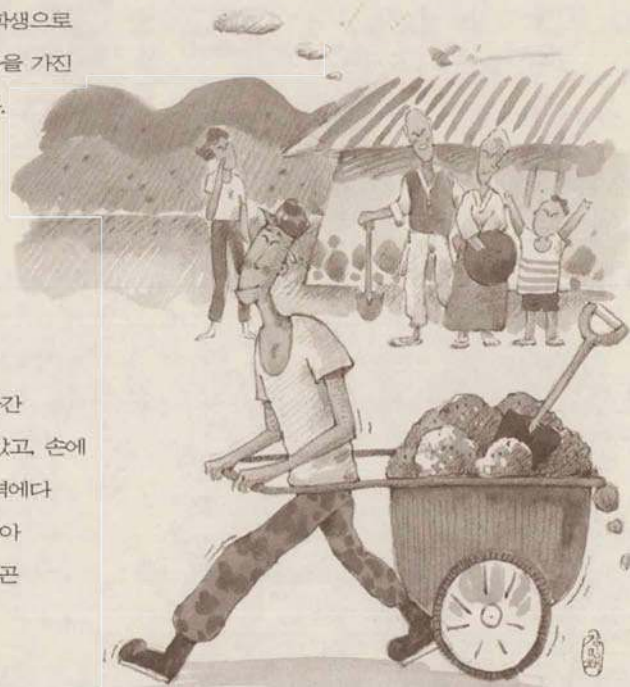
가득히 몰아쳐 온 진흙밭에서 자전거를 힘겹게 꺼내는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도움될 일을 찾아보았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었지만 얼굴 표정에 낙담하거나 좌절의 빛은 없었고, 그 집 식구들 또한 속상해하고는 있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집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옛부터 많은 전란과 일제치하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견디며 조국을 지켜낸 한국인의 끈질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에는 딸이 셋 있었는데, 둘째 딸이 고등학생으로 '진아'라는 이름을 가진 명랑한 아이였다. 진아는 방안 가득한 진흙밭에 손을 담가가며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중간중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에 묻은 진흙으로 벽에다 '진아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써놓곤 했다. 덕분에

은몸이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수해로 피해를 입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매우 뿌듯했다.

내가 하는 비행이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내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적었었다. 이런 나에게 군의 이름으로 대민봉사를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내 존재가 국민을 위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이번 S.R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

제17전투비행단 대위 송인철





## 국민들에게 군을 제대로 알리자

IMF 관리 체제로 들어선 뒤 “군인들은 좋겠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차량의 기름도 부대에서 그냥 주지, 정비도 해주지, 기름값이 오른들 무슨 걱정이라.” 하는 황당한 군 관련 정보(?)를 믿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군의 현실을 모르고 있다니... 중령쯤 되니까 모든 혜택을 군으로부터 받는 줄 알고 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끔찍스런 오해가 존재할까? 생각해 보건대, 그 이유는 우리 군이 너무 폐쇄적으로 국민들을 대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누구에게 뭐라고 이유를 댈 것도 없다. 우리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웅크리고 움켜쥐고 있었던 우리에게 돌아오는 업보(?)라면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회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군사적으로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알리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여 침소봉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국민들이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든, 아니면 우리의 임무에 동조하든 그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이 우리를 바

로 알 때 우리와 사회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각종 민원은 또 얼마나 많은가? 어처구니없는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데, 이것이 바로 군을 제대로 모르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제대로 알려서 군과 사회의 간격을 좁히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우리가 국민의 군대로서 해야 할 일의 하나인 것이다. ㉠

공본 인참부 중령 김홍식

기지 소식지 No. 1

## 내 마음 속에 새겨지는 이름들

하버드 대학의 고풍어린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전에서 목숨을 바친 하버드생 병사 20여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 물론 이 전쟁에서는 훨씬 더 많은 한국의 학도병들이 전사했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학교에도 전사 학도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지나는 자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표지는 없다. 존경하는 소대장님, 용감한 대대장님, 그리고 생명을 던져 진

지를 지켜낸 병사들의 얘기는 입으로만 전해질 뿐 그들을 기릴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은 전후(戰後) 팔을 잃은 국회 의원, 눈을 잃은 국방부 장관을 갖지 못했다. 추모 행사장에서도 한국 전 전상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 한국전 당시 미국 군사 고문관을 지낸 짐 하우스만의 회고록에서

국가적으로 무척 어려운 때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름없이 희생된 숭고한 이름들... 우리 마음의 동판에 깊이 새겨둡시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진지(陣地)를 최선을 다해 지켜냅시다. ㉡

『태성소식』 7월호 中

### 1. '98 서울 에어쇼, 10월 26일부터 개막

'98년도 서울 에어쇼가 10. 26(월)부터 11. 1(일)까지(26~29일 : 비즈니스 데이, 30일 이후 : 일반공개) 성남에 소재한 서울공항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96 서울 에어쇼 이후 2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최첨단 전투기 뿐만 아니라, 20여개국에서 155개 업체가 참여하여 자사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벌임으로써 21세기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의 미래를 다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군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02-761-1542)

### 3. 공군 장병 모집

공군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문의 · 호-1152, 02-506-1152)

대상	기수	지원서 접수기간	신체검사 및 면접
장교	사후 102기	10.7~20	11.2~6
하사관	하후 176기	10.1~16	10.22
병		10.1~16	

학과시험	1차 합격 발표	임영예정	입관일자
12.6	'99.2.12	'99.3.15	'99.7.1
10.23	'99.1.25	'99.2.15	'99.7.1
10.22~23	'99.1.15	'99.2.3,4	

### 2. 복지 시설 알리는 인트라넷 · CD-ROM

복지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공군 인트라넷과 CD-ROM을 통해 공군 복지 발전 정책과 중앙 복지 시설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군의 복지 정책 홍보와 중앙 복지 시설 안내, 타군 복지 시설 안내, 전국 관광 명소 안내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 호-1262)

### 4. 선배님들 소식 알 수 있는 보라매 지회 연락처

- 본회(서울지회) 태성대 보라매회 사무국 / 태성대 6890 ■ 부산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 1동 252-96 / 051-897-4729
- 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644-14 / 053-751-1689 ■ 경기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오산리 세아 APT 101-408 / 0351-879-7433
- 강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21-15 / 0391-684-9955 ■ 충남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68-16 / 042-583-4635
- 전북 전주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636-2 성원골드맨션 나동 104호 / 0652-222-5689 ■ 전북 익산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8-5 / 0653-855-5285 ■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2-4 / 062-954-3113
- 충남(아산분회) 충남 아산시 방축동 320 / 0418-44-5656



## 비행헬멧과 갓

1953년 당시 한국에 주둔한 미공군 제4요격단을 방문한 김호영이라는 村老와 Lowery중위의 기념사진 바뀐 갓과 노인의 근엄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美 Air Force誌 1996년 9월호에서)





건군 제50주년  
조국과 함께 국민과 함께



푸른 하늘에 펼쳐지는 첨단 항공기들의 축제

# 서울에어쇼 '98

## SEOUL AIR SHOW '98

푸른 창공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세계의 첨단 항공 우주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98 서울 국제 에어쇼에 오십시오.

세계 각국이 자랑하는 항공기들의 모습과

눈부시고 현란한 곡예 비행, 시범 비행,

그리고 하늘을 꿈꾸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기간: 10. 26(월)부터 11. 1(일)까지

일정: 26-29일 비즈니스 데이, 30일 이후 일반 공개

장소: 성남 서울공항

문의: (02)761-1542



● 월간 「공군」은 공군인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독자엽서

공군내  
채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신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